

딱 한 달이야

박찬희

“빵이요. 빵잉!”

해가 동네 뒷산 정수리에 걸려 있을 때 골목 밖 공터에서 크고 굵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방학이 시작된 지 십여 일이나 지났을까 싶은 날이었어요. 날씨는 조금씩 더워져 며칠째 목이 마른 나무들이 잔뜩 목을 빼고 있던 때였죠. 노란 목도리를 한 새도 목이 말랐는지 등지에서 꼼짝 않고 있었어요. 이따금 부는 바람은 시원하기는커녕 후끈거리기만 했어요.

“빵이요. 빵잉! 뭐든지 튀겨 드립니다. 멍쌀도, 햅쌀도, 콩도, 옥수수도 다 튀겨 드립니다.”

누렇게 변색된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밀짚모자를 쓴 아저씨는 몸이 뻐뻐 말랐지만, 목소리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 커서 빈터를 다 채우고도 골목까지 흘러들어 왔어요.

“아저씨, 정말 뭐든지 다 ‘빵’ 해 주시나요?”

골목 담벼락에 올라앉아 있던 메로가 조르륵 달려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물었어요.

장구를 눕혀 놓은 것처럼 생긴 무쇠 화로의 손잡이를 빙빙 돌리던 아저씨가 목에 두른 수건으로 이마를 쓰윽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뭐든지 다 되지. 안 되는 건 없어.”

귀를 쫓긋 세운 메로의 동그란 눈이 왕방울이 되었어요.

메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입을 오물거리며 무어라 혼잣말을 했는데, 입꼬리 양쪽으로 세 개씩 난 하얀 수염이 꼬물꼬물 움직였어요.

“애가? 맨날 속고만 살았니? 아저씨 말이야.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 다 된다니까!”

메로가 왼발로 수염을 툭툭 치더니 아저씨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럼, 아저씨, 저도 ‘뽕’ 해 주세요.”

아저씨가 화로 옆으로 길게 눕혀진 철망 주머니를 세워 들고 조금 전에 나무 대문 집 할머니가 맡긴 옥수수 강냉이를 대바구니에 쏟으며 메로에게 말했어요.

“음. 그래 한번 해 보자.”

화로에 달려 있는 빈 통 속으로 메로가 폴짝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야. 메로야. 너 정말 귀엽고 예쁜데 왜 튀겨 달라는 거니?”

아저씨는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눈으로 메로와 눈을 맞추며 물었어요.

“제가 말예요. 아저씨가 보시는 대로 키도 작고 비쩍 말랐잖아요.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놀림 받고 따돌림을 당해요.”

“거참 안됐구나. 친구들이 참 짓궂네.”

“그래서 제 몸을 ‘뽕’ 하고 튀기면 호랑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도 날 놀려 대지 못할 거예요.”

아저씨는 비로소 이유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짹 붙들고 있어. 아주 조금 어지러울 건데 금방 지나가.”

뚜껑을 닫은 아저씨가 화로 손잡이를 잡고 빙빙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 어지러워. 야옹.”

어지럽기는 했지만, 조금 후면 멋지고 커다란 호랑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빙그레 미소가 돌고, 이까짓 어지러움이야 너끈히 견뎌 낼 수 있다고 혼잣말을 하며 참고 있는데 아저씨 소리가 들려왔어요.

“뽕이요. 뽕!”

어질어질하던 메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음. 이젠 됐나 봐. 너무너무 기대되는걸.”

아저씨의 ‘뽕이요’ 소리와 함께 ‘퐁’ 소리가 나더니 하얀 김이 뭉실 뭉실 피어올랐어요. 잠시 후 바람이 하얀 김을 쓸어 가자 호랑이가 된 메로가 ‘짹’ 하고 나타났어요.

“와. 멋진걸. 내 일생일대의 작품이야. 작품!”

아저씨는 연신 흐뭇해하며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 냈어요. 이제 메로는 늙름한 호랑이가 되었어요. 걸음걸이도 멋지게 바뀌었어요. 앞발을 보니 묵직하고 몸의 무늬는 세상에서 제일 근사하게 변했어요. 메로는 얼른 친구들에게 가서 뽕내야겠다며 골목 안으로 달려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큰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보았더니 친구들이 모두 건너편 골목에 가 있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내주던 통조림 간식도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비야!”라고 나긋나긋하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모두 슬슬 피하기만 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메로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큰 덩치가 자꾸 쪼 그라드는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배고파.”

그때 무언가 메로의 발등을 스쳐 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주 작은 생쥐였어요. 메로는 얼른 발을 들어 생쥐를 낚아채려 했어요. 그러나 생쥐는 너무 작고 빨랐어요. 메로의 발등을 밟고 내달린 생쥐가 담벼락 아래 구멍 속으로 쏙살같이 들어갔어요.

“어? 저 놈 봐라.”

어슬렁어슬렁 구멍 앞으로 간 메로가 속을 들여다봤어요. 구멍 안쪽 깊숙이 생쥐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요놈. 잡았다. 네가 도망가면 어딜 도망가.”

메로는 재빠른 동작으로 구멍을 향해 앞발을 뻗었어요.

“아얏.”

구멍은 너무 작았고 메로의 앞발은 너무 컸어요. 우두둑 소리와 함께 앞발가락들이 육신거리기 시작했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며 투덜거렸어요.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어흥. 어흥.”만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골목 끝 담장 아래 쪼그리고 앉아 붕대

를 풀던 메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호랑이로 변신했었는데 앞발이 다시 고양이 발이 된 거예요. 빙튀기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도 안 하고 친구들 쪽으로 뛰어왔었는데, 그 뒤에서 아저씨가 해 줬던 말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메로야. 이 빙의 효과는 딱 한 달이야. 한 달.”

메로의 소식은 동네 밖으로 막 퍼져 갔어요. 옆 동네 울타리골에서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산 아래 이팝나무도, 그 나무 아래 사는 병아리도 저마다 밤낮으로 소곤댔어요. 소문은 소문의 꼬리를 물고 그 옆 동네 배미골에도 퍼져 갔어요.

배미골에는 자기 코가 너무 납작하다고 생각해서 늘 큰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는 훈이가 있었어요. 훈이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노래도 잘했지만, 낮은 코 때문에 놀림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돌아오던 훈이가 울타리골을 막 지나다가 이팝나무를 찾아갔어요.

“애, 이팝나무야. 너 그 소식 아니?”

“무슨 소식?”

이팝나무는 훈이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은 했지만 다시 물었어요.

“응……. 그거 있잖아. 빙.”

“아. 빙튀기 아저씨?”

“그래, 그 이야기 진짜야?”

이팝나무는 키가 커서 울타리 너머 옆 동네를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몸집이 다시 작아진 메로

가 이리저리 쏘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늘 자기 몸을 흔들며 대서 우수수 꽃잎을 떨어트리던 훈이를 놀려 주기로 마음먹고는 점잔을 빼며 말했어요.

“진짜지. 날 보라. 나도 그 아저씨께 갔다 왔어. 나, 뭐 달라진 거 없니?”

“응, 뭐가 달라져? 난 모르겠는걸.”

이팝나무가 말했어요.

“가까이에서는 안 보여. 좀 멀리 가서 내 머리 위를 봐 봐.”

훈이는 이팝나무에서부터 스무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팝나무의 머리 위를 살펴봤어요.

“어? 이상하네? 전에는 머리카락이 동글동글 말려 있었는데?”

“봤어? 더 자세히 봐 봐.”

훈이는 한쪽 눈을 찡그리고 더 자세히 봤어요.

“야. 이팝나무야. 저건 뭐냐?”

“응. 팝콘이야. 일주일 전에 마을에 내려가서 아저씨를 만났었어. 내 꽃봉오리들을 한 자루 가지고 가서 튀겨 달라고 했지. 냄새 맡아 봐. 어때? 상큼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지? 팝콘처럼 보송보송한 내 머리카락 멋지지 않니? 이젠 아침마다 빗을 필요도 없어. 그냥 쓰윽 손으로 올리고 툭툭 만지면 그만이야.”

이팝나무가 훈이에게 가까이 와 귀를 대 보라고 하고는 소곤소곤 말해 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훈아. 잘 들어. 그 아저씨 아무 때나 ‘뽕’ 해 주지는 않아. 아무도 없는 때에, 그림자가 완전히 그늘에 가려진 후에

만 몰래몰래 해 주셔.”

이팝나무의 이야기를 들은 훈이는 집까지 걸어오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음. 이팝나무까지도 멋진 모습이 된 걸 보니 뜬소문이 아니었군. 좋았어. 나도 내일 갔다 와야지.”

훈이는 콩닥콩닥 설레서 밤새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했어요. 공부 시간 내내 마음은 땀튀기 마당에 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미꾸라지를 잡으러 논둑길 수로에 가자고 했지만 핑계를 대고는 땀튀기 아저씨가 있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누가 볼까 싶어서 나무들과 지붕이 그늘을 드리운 곳만 밟으면서 몰래몰래 왔어요.

“저어, 아저씨…….”

보리 튀밥을 자루에 털어 내던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난 훈이를 보고 깜짝 놀라 자루를 놓쳤어요. 하마터면 다 쏟아질 뻔했어요.

“아이고 애야. 간 떨어지겠다. 깜짝 놀랐잖아.”

“아저씨, 아저씨는 요술쟁이라면서요?”

“요술쟁이? 그게 무슨 소리니?”

“다 알고 왔어요. 저도 해 주세요.”

“뭘 해 달라는 거니? 이제 그림자가 그늘에 숨어 들어가서 짐을 꾸려야 돼.”

훈이는 속으로 ‘옳다구나. 이팝나무 말이 맞았어.’라고 생각하고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는데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소리가 사르르 떨렸어요.

“저도 ‘땀’ 해 주세요. 제 코 말예요.”

“아니, 넓적하고 멋진데 왜? 이유를 말해 주면 ‘뽕’ 해 주지.”

‘이젠 됐다.’ 생각한 훈이가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그때 해가 옆 동네 울타리 너머로 기우는 게 보였어요.

“알았다. 그럼 한번 해 보자. 얼마만큼이면 되겠니?”

피노키오를 너무 좋아하고, 피노키오의 코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던 훈이가 아저씨 귀에 바짝 다가서서 들릴락 말락 한 소리로 속삭였어요.

“클수록 좋아요. 아주아주 크게만 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서른을 세고 있으렴.”

“하나. 두울, 세엿, 네에엿…….”

훈이는 가능하면 더 멋진 코로 변신하라고 숫자를 아주 천천히 세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기에 졸리기는 했지만, 가끔 실눈을 번갈아 뜨면서 서른까지 다 세었어요.

“자, 이제 준비되었니? 이제 뽕이다!”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훈이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저씨,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작게, 아주 작게요.”

훈이는 행여나 이 비밀이 탄로 날까 봐 조바심이 났어요. 멋진 코로 ‘짤!’ 하고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알았다. 뭔가 푹푹이가 있는 모양이지? 알았다. 알았어!”

손잡이를 멈춰 세우고 바구니를 연결한 아저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뽕이요. 뽕잉!”

화들짝 피어오른 증기 속에 훈이가 서 있었어요. 훈이는 몸이 뜨

거위 펄쩍펄쩍 뛰면서도 코를 만져 봤어요. 피노키오처럼 길쭉해졌어요.

“와. 멋지다. 멋져! 아저씨, 고맙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데 코가 땅에 부딪혔어요. “아야.” 좀 아프기는 했지만 얼른 자랑하고 싶어서 대충 인사를 하고는 이팝나무가 있는 울타리 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때 아저씨가 무어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훈이야. 이 빵의 효과는 딱 한 달이야. 한 달.”

훈이는 신이 났어요. 친구들이 말을 걸면 뒷짐을 지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멀리서 같은 반 여자 애들이 서서 호호 웃는 것도 보았는데, 자기 코가 멋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들의 코에 관심이 갔어요. 인식이 코는 돼지코, 명진이 코는 들창코, 형식이 코는 주먹코, 혜주 코는 납작코, 윤지 코는 딸기코. 그때부터 친구들을 부를 때 이름대신 별명을 붙여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랑 좀 해야지.’ 하고는 이팝나무에게 갔어요. 달빛이 이팝나무 위에 스르르 내리고 있었어요. 잠든 이팝나무의 머리카락이 달빛에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훈이가 이팝나무를 흔들며 깨웠어요.

“야. 잠꾸러기 이팝나무야. 일어나 봐.”

이팝나무를 너무 세게 흔드는 바람에 훈이 머리 위로 팝콘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팝콘은 달빛을 받아서인지 이전의 새하얀 색깔이 아니었어요.

“야, 일어나. 나 좀 봐 봐.”

이팝나무가 깨어 내려다보니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 훈이가 왼손으로 코를 받쳐 들고는 오른손으로 자기를 막 흔들고 있었어요.

“아야!”

이팝나무를 흔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진 훈이의 코가 나뭇가지에 걸려 버렸어요. 바둥대는 훈이를 본 이팝나무의 웃음보가 터졌어요. 하도 크게 웃는 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날리는 꽃잎들이 훈이의 머리 위로 눈처럼 쌓였어요.

간신히 코를 빼낸 훈이는 이팝나무가 바둥대던 자기를 보고 웃어댄 게 너무 창피해서 허둥대면서 도망쳤어요. 그날부터 훈이는 이팝나무를 피해, 두 집 건너편 길로 돌아서 다녔어요. 그래도 훈이는 여전히 신이 났어요. 이젠 아무도 자기에게 납작코라고 놀려 대지 않았어요. 대신에 멀찍이 서서 말을 주고받으며 웃고는 했어요. 훈이는 자기 코가 부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더 신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빠기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쏘다니다가 달이 막 떠오르고 있던 시간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몸이 으스스 떨렸어요. 조금 후부터는 머리가 ‘땡’ 하더니 콧속이 멍멍해졌어요. 그리고는 코가 막혀 버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코를 풀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코를 ‘땡’ 하고 힘주어 풀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콧물이 깊숙한 콧속에서 그렁그렁 끓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코가 뚫리기는커녕 속에서 콧물만 그렁그렁하지 빠져나오지를 앓았어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처럼 길고 큰 코가 야속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코를 튀긴 걸 후회했어요.

“아. 그때가 좋았어. 납작코일 때는 그냥 콧물이 주르륵 흘러나왔고, 코가 막히면 엄마가 ‘훅’ 하고 몇 번 힘차게 불어 주면 금방 나아 있었는데…….”

훈이는 코를 크게 만든 것이 참 나쁜 욕심이었다고 후회했어요. 친구들을 놀려 댄 것도 후회했어요. 맨날 이팝나무를 흔들어 댔던 것까지 후회했어요.

훈이는 밤새 몸부림을 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두 발을 모아 그 자리에서 콩콩 뛰었어요. 그때 동그랗고 노란 달이 달무리를 거느리고 훈이의 머리 위에 멈춰서요.

“왜 그러니? 훈아.”

“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이젠 코를 주체하지도 못하겠어요. 코가 막히고 콧물도 그렇그렇하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고……. 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훈이의 목소리는 아주 간절했어요. 별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달님 옆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훈이를 내려다보면서 깜빡깜빡 걱정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때, 별 하나가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참고 기다려. 내가 다녀올게. 뽕튀기 아저씨를 모셔 오면 아저씨에겐 무슨 수가 있을 거야.”

쏟살같이 아랫동네 뽕튀기 마당 쪽으로 달려 내려가는 별의 뒤를 따라 또 하나의 별이 미끄러지듯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별똥별아. 같이 가. 밤이 깊었잖아.”

코가 커진 지 한 달이 된 날 밤이었어요.

별똥별이 달려간 지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지친 훈이가 간신히 쪽잠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엄마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훈아. 어서 일어나.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어서 일어나요.”

부스스 일어난 훈이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욕실로 갔어요.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더듬어서 물을 틀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세수를 시작했어요.

“어? 코가 작아졌어.”

코를 ‘퐁’ 하고 풀어 봤어요. 시원해졌어요.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고양이 세수를 하고는 욕실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어요.

“엄마! 제 코가 작아졌어요. 다시 납작코가 되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보글보글 된장국을 끓이던 엄마가 훈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애가? 잠이 덜 깬니? 무슨 소리야, 코가 작아졌다는 게. 엉뚱한 소리 말고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가 한 국자 퍼 담아 놓으신 된장국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얼른 한 수저를 떠서 먹기 시작했어요. 게 눈 감추듯 아침밥을 먹었어요.

“어라? 우리 훈이가 된장국을 다 먹네?”

엄마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게 된 훈이는 빙그레 웃으며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해가 이팝나무의 머리 위에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별명으로만 불렀던 친구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 줘야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친구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인식이. 명진이. 형식이. 혜주. 윤지. 모

두 정겨운 이름들이네요. 5분만 있으면 그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울타리골을 나와 배미골을 지나는 훈이의 걸음이 어느새 두 배는 빨라졌어요.